

衣服紋樣의 기호도에 관한 實態 研究

—韓服을 中心으로—

金 恩 珠

目 次	
I. 序 論	B. 형태面
II. 理論的 背景	C. 색깔面
III. 研究方法	D. 크기面
IV. 結果 및 分析	E. 응용面
1. 韓服착용의 실태	V. 結 語
2. 紋樣의 기호도	VI. ABSTRACT
A. 관심面	

I. 序 論

衣服은 人類의 歷史와 더불어 人間의 裝飾本能과 自然을 극복하기 위한 必要性에서 변화 발전하였다. 廣義로 볼 때, 우리의 衣服이나 그것에 나타난 紋樣이 獨特한 表情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民族과 비교해 볼 때 한복만이 가진 美와 意味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織物紋樣에 固有한 것이라거나 독자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韓國的인 것이라고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紋樣이란 物體의 表面에 주어지는 圖案·模樣 등의 장식적인 形成을 말하며, 우리의 衣服이나 그것에 나타난 服飾과는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韓服에 나타난 紋樣의 기호도 조사를 통하여 傳統紋樣을 實生活에 어울리게 응용·적용시키며, 紋樣의 韓國化·現代化에 創造的인 發展을 도모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에 두었다. 또한 紋樣은 多樣한 側面에서 분류·사용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衣服紋樣의 형태,

색깔, 크기面을 紋樣기호의 變因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앞으로 실생활에의 응용 여부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연령·학력 및 학생의 용돈 내지의 月收入등으로 限定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韓服에 나타난 紋樣의 기호도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紋樣은 一般的으로 두가지 側面으로 볼 때, 紋樣 資料上的 分類로써 自然形象紋樣·幾何紋樣·吉祥語紋·抽象紋樣으로 나누어지며, 紋樣 構成上的 分類로써 獨立紋樣·連續紋樣(二方連續·四方連續)으로 구분할 수 있어 形狀·色彩는 裝飾構成의 要素가 되는 것이다. 또한 紋樣은 寫實的으로 表現한 고전적인 것이 대부분이나, 요즘에는 特定 形態가 없는 抽象紋이나 단순화·圖式化한 幾何紋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대부분은 40代의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취향은 무시못하며 지나치게 대담하거나 現代的인 紋樣보다는 韓國的인 고유 의상에 대한 우아한 美의식은 대단히 중요하여 과거의 織物紋樣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연령·학력·수입정도 및 취미 등의 개인 환경과 깊은 關係가 있을 것이며, 지방에 따른 취향도 조금씩 다른데 서울에서는 抽象的이고 現代的인 문양이, 부산에서는 꽃 문양이, 대구 및 경남 지방에서는 고전적인 문양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근래에 와서 韓服 옷감에 나타난 색깔과 문양을 살펴볼 때 本絹 洋緞은 先染 織物이며 주로 바탕색과 무늬색이 같은 單色으로 연하고 고운 색이 많이 보인다. 화학糸 양단이 생산되면서 本絹 洋緞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本絹보다 값이 싸고 實用的이기 때문에 韓服감으로 많이 애용되고, 문양이나 색상도 本絹 洋緞보다 다양하다. 직물 겉면에 크레이프 효과(crape effect)를 주어 온화한 촉감을 지닌 本絹 뉴통의 紋樣은 洋緞과 비슷하나 작고 아기자기한 紋樣이 많으며, 색상은 양단보다 더 곱고 열은 색이 많다. Silk가 우아하고 좋은 줄은 알지만 소비자의 性向은 화학糸로 된 洋緞과 뉴통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表面에 나타나는 紋樣 中에서도 植物紋은 素材의 種類도 많고 現代에 올수록 抽象化되는 경향이 있으며, 動物紋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變化가 없고 그 素材도 빈약하여 다른 紋樣에 부수적인 紋樣으로 나타나는 듯 하다.

Ⅲ. 研究 方法

調査對象은 서울 市內 2個 中學校 1, 2, 3學年

表 1. 대상자의 연령

연 령	20代	30代	40代	50代	합계(名%)
대 상 자	107명 27.2%	74 19.17	135 34.97	70 18.13	386 100.00

表 2. 대상자의 학력

학 령	중졸이하	고 졸	전 문	대 학 생	대 졸 이 상	합계(名%)
대 상 자	80名 20.73	175 45.34	9 2.33	75 19.43	47 12.18	386 100.00

表 3. 대상자의 月수입 (단, 학생은 용돈으로)

수 입	10만원 이하	10~30만원	31~50만원	51~70만원	70만원 이상	합계(名%)
대 상 자	114 29.53	147 38.08	91 23.58	15 3.89	19 4.92	386 100.00

生(세종中·경수中)의 學父母님들과 세종대학의 가정학과 學生들을 대상으로 총 500名을 조사하여, 그 중 응답이 불분명한 것은 빼고 386名만 처리하였다. 調査期間은 1982年 6月 20日 부터 7月 10日 까지 20日에 걸쳐 학급 선생님을 통하여 質問紙를 나누어 주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그 범위는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째 부분은 韓服의 착용실태에 관한 의견으로 3項目을 쓰도록 하였고, 둘째 부분은 紋樣의 기호도에 관한 의견인데 구체적으로 관심面·형태面·색깔面·크기 및 응용面으로 나눠 총 24個 問項을 만들어 택일의 形式을 취하도록 하였다. 資料 分析에서 개인의 環境調査는 項目에 따라 백분율로 통계를 내고, 紋樣에 따른 기호는 문항 분석을 하여 變因別로 묶어 연령, 학력, 학생의 용돈 내지는 가정의 월수입과의 關係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比較 可能케 했으며 이들 개인 환경조사는 表1. 表2. 表3과 같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歸無假設과 對立假設을 설정하고 유의수준($\alpha=0.05$)을 결정한 후,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 표본(random sample)을 추출하여 표본자료를 얻어서 귀무가설에 의거하여 각 구간(interval category)별로 기대치(expected)를 계산하여, 빈도숫자(frequency)와의 비교로써 조사하는 The Chi-Square Goodness-of-Fit Test를 실시하였다.

IV. 結果 및 分析

1. 韓服 착용의 실태

1) 韓服을 소유하고 있는 數에 대해서 살펴보면, 20代의 58%가 2~3벌 정도이며, 나머지 약 30%는 1벌 내지는 없음으로 나타났고, 30代에서는 50%가 3~5벌 정도 40代, 50代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대치보다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현상으로 보아 비교적 젊은 층보다는 40, 50代에서 한복 소유 내지는 착용율이 높음을 알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는 양복을 착용하는 경향을 현저하게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생 제외 다른 世代들에서는 전반적으로 3~5벌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졸과 대졸이상의 약 10%는 10벌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기대치보다 높은 빈도 숫자를 나타내고 있었다. 수입면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가정에서는 5~10벌 내지는 10벌 이상 소유 숫자도 많은데 비해 수입 정도가 떨어질수록 소유 숫자도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表4)

2) 한복을 즐겨 착용하는 계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50%가 추운 계절에 착용한다

表 4. 소유한 韓服의 수

	Frequency Expected	2~3	3~5	5~10	10↑	기 타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e	20~29	63 41.9	12 33.5	3 15.5	0 0.7	29 9.4	107 27.72	$\alpha=0.0001$
	30~39	29 28.9	37 23.2	5 10.7	2 4.6	1 6.5	74 19.17	
	40~49	41 52.8	46 42.3	29 19.6	15 8.4	4 11.9	135 34.97	
	50↑	18 27.4	26 21.9	19 10.2	7 4.4	0 6.2	70 18.13	
Ed	중↓	29 31.3	29 25.1	17 11.6	5 5.0	0 7.0	80 20.73	$\alpha=0.0001$
	고	58 68.5	71 54.9	29 25.4	13 10.9	4 15.4	175 45.34	
	전문	2 3.5	3 2.8	4 1.3	0 0.6	0 0.8	9 2.33	
	대 학생	44 29.3	1 23.5	3 10.9	0 4.7	27 6.6	75 19.43	
	대↑ (대졸이상)	18 18.4	17 14.7	3 6.8	6 2.9	3 4.1	47 12.18	
In	10↓ (10만원↓)	68 44.6	12 35.7	3 16.5	3 7.1	28 10.0	114 29.53	$\alpha=0.0001$
	10~30	55 57.5	50 46.1	28 21.3	12 9.1	2 12.9	147 38.08	
	31~50	19 35.6	47 28.5	18 13.2	4 5.7	3 8.0	91 23.58	
	51~70	3 5.9	3 4.7	4 2.2	4 0.9	1 1.3	15 3.89	
	70↑	6 7.4	6 7.4	3 2.8	1 1.2	0 1.7	19 4.92	
Total		151 39.12	121 31.35	56 14.51	24 6.22	34 8.81	386 100.00	

하여 가장 높은 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봄과 가을이 각 20%씩이다. 반면에 여름에는 5.0%로 제일 적은 율을 보이는데, 이는 날씨 관계로 속옷 착용 및 일상 생활에 부적당하다고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겨울에는 좋은 방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40, 50대의 몇몇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평상복으로도 많이 착용되는 듯하다. 世代별로 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가을에 많이 입는 편이며, 겨울의 방한 효과 내지는 행사나 모임을 제외하고는 봄·가을에 각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입혀지고 있는 실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表5)

3) 한복을 즐겨 착용하는 경우는 행사나 파티 따위의 모임을 위하여 가끔씩 입는다가 응답자의 76%나 되며, 외출복으로는 16%, 기타 명절이나 제사를 위해 7%로서 평상복으로는 거의 입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20代나 30代는 행사나 모임을 위하여 가끔씩 입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반하여, 40代나 50代에서는 외출복으로 입는 경향으로 50代에서는 현저하게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학력별로 볼 때, 비교적 교육 수준이 낮은 층에서는 외출복으로 주로 많이 입고 있으나 대졸이나 대졸 이상의 고수준급 층에서는 오히려 잦은 행사나 모임을 위

表 5. 착용하는 계절

	Frequency Expected	봄	여 름	가 을	겨 울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17 21.5	1 1.4	17 31.7	71 51.5	106 27.53	$\alpha=0.0012$
	30~39	20 15.0	1 1.0	29 22.1	24 3.59	74 19.22	
	40~49	29 27.4	3 1.8	46 40.3	57 65.6	135 35.06	
	50↑	12 14.2	0 0.9	23 20.9	35 34.0	70 18.18	
Ed	중↓	15 16.2	1 1.0	33 23.9	31 38.9	80 20.78	$\alpha=0.0001$
	고	47 35.3	3 2.3	54 52.0	70 84.5	174 45.19	
	전문	1 1.8	0 0.1	4 2.7	4 4.4	9 2.34	
	대	6 15.2	0 1.0	11 22.4	58 36.4	75 19.48	
	대↑	9 9.5	1 0.6	13 14.0	24 22.8	47 12.21	
In	10↓	12 23.1	1 1.5	26 34.1	75 55.4	114 29.61	$\alpha=0.0077$
	10~30	33 29.6	4 1.9	52 43.6	57 70.9	146 37.92	
	31~50	24 18.4	0 1.2	29 27.2	38 44.2	91 23.64	
	51~70	4 3.0	0 0.2	3 4.5	8 7.3	15 3.90	
	70↑	5 3.8	0 0.2	5 5.7	9 9.2	19 4.94	
Total		78 20.26	5 1.30	115 29.87	187 48.57	385 100.00	

表 6. 착용하는 경우

	Frequency Expected	정상복	외출복	행사	기타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1 .	2 17.9	86 80.7	18 7.4	106 27.53	$\alpha=0.0001$
	30~39	0 .	8 12.5	61 56.3	5 5.2	74 19.22	
	40~49	0 .	33 22.8	98 102.7	4 9.5	135 35.06	
	50↑	0 .	22 11.8	48 53.3	0 4.9	70 18.18	
Ed	중↓	0 .	22 13.5	57 60.9	1 5.6	80 20.78	$\alpha=0.0001$
	고	1 .	35 29.4	131 132.4	8 12.2	174 45.19	
	전문	0 .	3 1.5	6 6.8	0 0.6	9 2.34	
	대	0 .	0 12.7	59 57.1	16 5.3	75 19.48	
	대↑	0 .	5 7.9	40 35.8	2 3.3	47 12.21	
In	10↓	0 .	7 19.2	89 86.8	18 8.0	114 29.61	$\alpha=0.0001$
	10~31	1 .	38 24.6	105 111.1	3 10.2	146 37.92	
	31~50	0 .	15 15.4	71 69.3	5 6.4	91 23.64	
	51~70	0 .	3 2.5	11 11.4	1 1.1	15 3.90	
	70↑	0 .	2 3.2	17 14.5	0 1.3	19 4.94	
Total			65 16.88	293 76.10	27 7.01	385 100.00	

하여 입는 편이었다. (表6)

2. 紋樣의 기호도

A. 관심面

1) 직물에 紋樣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관심 있게 살피는가에 대하여 20代가 가장 관심이 많은 편으로 50%의 응답을 보였으며 30, 40, 50代에서 까지도 40%가 관심을 보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이에는 상관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紋樣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숫자

가 많았다. 또한 수입이 낮은 층에서는 紋樣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관심도도 비례하여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고 수입이 많은 가정에서일수록 관심도가 높았고 紋樣 그 자체가 의복을 구성하는 직물을 나타내는 무늬로서의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表 7)

2) 외출시에는 옷에 나타나는 문양의 주로 어떤 면에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대하여 전체의 67%가 색깔面에 응답을 보여 제일 높은 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形態面에 25%의 응답을 보였다. 20代의 학생들은 주로 形態面에 관심이

表 7. 문양에 대한 관심도

	Frequency Expected	많 다	보통이다	아 니 다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54 46.0	52 58.8	1 2.2	107 27.72	$\alpha=0.4483$
	30-39	30 31.8	43 40.6	1 1.5	74 19.17	
	40-49	54 58.1	76 74.1	5 2.8	135 34.97	
	50 ↑	28 30.1	41 38.4	1 1.5	70 18.13	
Ed	중 ↓	25 34.4	50 43.9	5 1.7	80 20.73	$\alpha=0.0230$
	고	73 75.3	100 96.1	2 3.6	175 45.34	
	전문	3 3.9	6 4.9	0 0.2	9 2.33	
	대	39 32.3	35 41.2	1 1.6	75 19.43	
	대 ↑	26 20.2	21 25.8	0 1.0	47 12.18	
In	10 ↓	48 49.0	62 62.6	4 2.4	114 29.53	$\alpha=0.5584$
	10-30	58 63.2	87 80.7	2 3.0	147 38.08	
	31-50	41 39.1	49 50.0	1 1.9	91 23.58	
	51-70	9 6.5	6 8.2	0 0.3	15 3.89	
	70 ↑	10 8.2	8 10.4	1 0.4	19 4.92	
Total		166 43.01	212 54.92	8 2.07	386 100.00	

많았고, 30대의 젊은 주부층에서는 77%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색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40, 50대에서는 색깔이나 형태보다는 크기면에 관심을 모았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이나 수입 정도면에서의 분석 결과로 보면 비교적 학력이 높고 수입 정도가 많은 층에서 색깔이나 形態面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紋樣 자체에 가미된 色相 내지는 그 짜임새에 따라 기호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8)

3) 요즈음에 관심을 지니고 입고 싶은 한복의 문양 종류는 20대에서는 금박 紋樣이나, 이에 못

지 않게 나염 紋樣에도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30대에서는 자수문양에 전체의 32%를 보여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이는 직물 자체에 무늬를 새겨서 나타낸 직조 문양이나 금박을 입혀서 화려하게 변화시키던 것이 요즈음에 와서는 직물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繡를 놓아서 개성을 나타내거나 한복옷감 자체의 紋樣에도 염색을 하게 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젊은 학생들이나 주부들간에서는 이러한 현대감각의 문양에 인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대나 30대에서는 거의 인기가 없었던 직조문양이 40, 50대에서는 오히려 직조문양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젊은층과는

表 8. 각 측면에 따른 紋樣의 관심 비중

	Frequency Expected	크 기	색 깔	형 태	기 타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1 5.8	66 72.1	38 27.7	2 1.4	107 27.72	$\alpha=0.0329$
	30-39	4 4.0	57 49.8	13 19.2	0 1.0	74 19.17	
	40-49	9 7.3	90 90.9	35 35.0	1 1.7	135 34.97	
	50↑	7 3.8	47 47.2	14 18.1	2 0.9	70 18.13	
Ed	중↓	4 4.4	57 53.9	18 20.7	1 1.0	80 20.73	$\alpha=0.0809$
	고	9 9.5	122 117.9	42 45.3	2 2.3	175 45.34	
	전문	2 0.5	3 6.1	4 2.3	0 0.1	9 2.33	
	대	1 4.1	45 50.5	27 19.4	2 1.0	75 19.43	
	대↑	5 2.6	33 31.7	9 12.2	0 0.6	47 12.18	
In	10↑	4 6.2	75 76.8	33 29.5	2 1.5	114 29.53	$\alpha=0.7546$
	10-30	8 8.0	97 99.0	41 38.1	1 1.9	147 38.08	
	31-50	6 5.0	65 61.3	19 23.6	1 1.2	91 23.58	
	51-70	1 0.8	10 10.1	3 3.9	1 0.2	15 3.89	
	70↑	2 1.0	13 12.8	4 4.9	0 0.2	19 4.92	
Total		21 5.44	260 67.36	100 25.91	5 1.30	386 100.00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수입이 적은 가정에서는 금박문양, 보통 수준에서는 직조문양을 택하는 편이었으나 고수준층에서는 자수나 염색 문양에 대한 인기가 높은 점으로 보아 근래에 와서 비교적 자수나 염색문양의 새로운 기법이나 참신한 디자인이 많은 인기를 지닐과 동시에 많은 비용을 요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겠다. (表 9)

B. 形態面

1) 평상시에 즐겨 입는 형태의 문양으로는 식물紋이 전체의 28%로 가장 높은 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자연紋이 20%, 기하紋이 15%씩으로

나타났다. 20代와 30代의 젊은 층에서는 기하紋이나 식물紋에 대한 인기가 높았으며, 40, 50代에서는 자연紋에 관심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젊은층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기하紋樣에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은 점으로 보아 모든 紋樣이 점점 抽象化 되어가는 경향과 더불어 현대에 올수록 吉祥(語)紋이나 幾何紋은 素材도 다양해지고 패턴(pattern)도 여러가지로 변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중 植物紋은 어느 時代나 素材의 種類도 가장 많고 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動物紋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變化가 없고 요즈음에 와서는 과거보다 인기가 떨어

表 9. 입고 싶은 한복의 문양 종류

	Frequency Expected	직 조	금 박	자 수	나 염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20 33.0	37 38.8	27 29.4	23 15.8	107 27.72	$\alpha=0.0241$
	30-39	22 22.8	19 19.9	24 20.3	9 10.9	74 19.17	
	40-49	51 41.6	30 36.4	40 37.1	14 19.9	135 34.97	
	50↑	26 21.6	18 18.9	15 19.2	11 10.3	70 18.13	
Ed	중↓	35 24.7	19 21.6	16 22.0	10 11.8	80 20.73	$\alpha=0.0379$
	고	54 54.0	46 47.2	54 48.1	21 25.8	175 45.34	
	전문	4 2.8	2 2.4	3 2.5	0 1.3	9 2.33	
	대	11 23.1	25 20.2	22 20.6	17 11.1	75 19.43	
	대↑	15 14.5	12 12.7	11 12.9	9 6.9	47 12.18	
In	10↓	27 35.1	37 30.7	28 31.3	22 16.8	114 29.53	$\alpha=0.0926$
	10-30	44 45.3	41 39.6	47 40.4	15 21.7	147 38.08	
	31-50	38 28.1	19 24.5	21 25.0	13 13.4	91 23.58	
	51-70	5 4.6	4 4.0	2 4.1	4 2.2	15 3.89	
	70↑	5 5.9	3 5.1	8 5.2	3 2.8	19 4.92	
Total		119 30.83	104 26.94	106 27.46	57 14.77	386 100.00	

지는 듯 하나. 植物紋樣 中에서는 사군자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목단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이 植物紋은 조선시대 직물 문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목단·四君子·三多紋·포도 등의 문양은 지금도 애용되고 있다. 인기가 높은 四君子의 形態는 野菊이 대부분이고, 이를 약간 變形시킨 甲菊花 形態도 간혹 발견된다고 한다. 다른 紋樣과 잘 어울릴 수 있는 利點이 있어 吉祥語紋과 함께 교대하여 나타나 기도하는 비교적 단순·소박한 서민적인 形態로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植物紋樣과는 대조적인 動物紋樣에 비해 전체적

인 반응이 좋았을 뿐만아니라, 조사대상자가 여자였다는 점에서 女子用 衣類에는 靜的이고도 화려한 植物紋樣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動物紋樣에 관심을 지닌 응답자의 50%가 鶴紋樣에 호응을 보여 가장 인기가 많았다. 動物 形態는 수없이 많을 수가 있지만 실물에서는 용·봉황·학·박쥐·거북 등으로 나타났고, 30代에서는 봉황紋이, 40代에서는 용紋樣도 인기가 있었다. 鶴紋樣은 延壽吉祥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龍이나 鳳凰紋樣이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귀족적·남성적인 반면에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는 평민적 여성적인 紋樣으로서 대체

表 10. 평상時에 즐겨입는 紋樣

	Frequency Expected	動物	植物	길 양	기 하	자 연	복 합	기 타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12 14.1	29 30.2	12 9.4	24 16.9	13 22.2	15 11.4	2 2.8	107 27.72	$\alpha=0.0594$
	30-39	12 9.8	25 20.9	3 6.5	14 11.7	12 15.3	4 7.9	4 1.9	74 19.17	
	40-49	18 17.8	36 38.1	15 11.9	17 21.3	33 28.0	14 14.3	2 3.5	135 34.97	
	50↑	9 9.2	19 19.8	4 61.2	6 11.1	22 14.5	8 7.4	2 1.8	70 18.13	
Ed	중↓	7 10.6	24 22.6	6 7.0	7 12.6	23 16.6	9 8.5	4 2.1	80 20.73	$\alpha=0.0279$
	고	28 23.1	51 49.4	16 15.4	22 27.7	37 36.3	17 18.6	4 4.5	175 45.34	
	전문	3 1.2	1 2.5	3 0.8	1 1.4	1 1.9	0 1.0	0 0.2	9 2.33	
	대	9 9.9	19 21.2	8 6.6	19 11.9	8 15.5	11 8.0	1 1.9	75 19.43	
	대↑	4 6.2	14 13.3	1 4.1	12 7.4	11 9.7	4 5.0	1 1.2	47 12.18	
In	10↓	18 15.1	33 32.2	9 10.0	24 18.0	14 23.6	14 12.1	2 3.0	114 29.53	$\alpha=0.7233$
	10-30	19 19.4	42 41.5	13 12.9	20 23.2	36 30.5	14 15.6	3 3.8	147 38.08	
	31-50	11 12.0	25 25.7	9 8.0	12 14.4	22 18.9	10 9.7	2 2.4	91 23.58	
	51-70	0 2.0	4 4.2	2 1.3	3 2.4	4 3.1	1 1.6	1 0.4	15 3.89	
	70↑	3 2.5	5 5.4	1 1.7	2 3.0	4 3.9	2 2.0	2 0.5	19 4.92	
Total		51 13.21	109 28.24	34 8.81	61 15.80	80 20.73	41 10.62	10 2.59	386 100.00	

로 인기가 많은 것이리라 생각한다. (表 10)

4) 즐기는 한복으로 전통적인 면과 현대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紋樣 中에서 어떤 面에 더 흥미를 느끼는가에 대해서 젊은 층에서는 현대적인 紋樣에 관심이 큰 반면에 40, 50代에서는 현저하게 전통적인 紋樣이 인기를 모았다. 즉, 韓服도 현대의 시대 변천에 따른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지껏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던 것이 젊은 층에서 디자인은 그대로 간직하고 색채 장식 등을 가미하여 화려하게 변화시킨 개량 한복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 듯 하다. 대학생들은 전통적인 紋樣을 즐기는 경향이 있었고, 교육수

준이나 수입 정도와는 별 상관없이 개인의 기호나 분위기에 따라 전통적인 面과 현대적인 面의 선택이 달라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지니는 편이지만, 전통 紋樣에 대한 관심이 현대 감각의 紋樣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시대가 바뀌더라도 전통적인 한복에 대한 매력 및 고유 의상에 대한 美 의식은 쉽게 사라질 수 없음을 말해주는 듯 하다. (表 11)

5) 좋아하는 형식의 紋樣으로는 대체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순 무늬에 대한 인기가 높았으며, 특히 40, 50代에서는 거의 60%가 단순 무늬에 호감을 지닌 점으로 보아, 옛부터 우리 조상

表 11. 좋아하는 측면의 紋樣

	Frequency Expected	전 통 적	현대감각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52 54.9	55 52.1	107 27.72	$\alpha=0.6932$
	30-39	35 38.0	39 36.0	74 19.17	
	40-49	73 69.2	62 65.0	135 34.97	
	50↑	38 35.9	32 34.1	70 18.13	
Ed	중↓	41 41.0	39 39.0	80 20.73	$\alpha=0.3403$
	고	85 89.8	90 85.2	175 45.34	
	전문	7 4.6	2 4.4	9 2.33	
	대	43 38.5	32 36.5	75 19.43	
	대↑	22 24.1	25 22.9	47 12.18	
In	10↓	56 58.5	58 55.5	114 29.53	$\alpha=0.1200$
	10-30	77 75.4	70 71.6	147 38.08	
	31-50	51 46.7	40 44.3	91 23.58	
	51-70	3 7.7	12 7.3	15 3.89	
	70↑	11 9.7	8 9.3	19 4.92	
Total		198 51.30	188 48.70	386 100.00	

들은 白衣民族이라 하여 단색을 많이 이용해온 탓이 아닌가도 싶다. 20, 30代는 각 20% 정도가 복합 紋樣에 관심을 보여 가장 인기가 높았고,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의 계층에서는 단순 무늬를 즐겼으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단순무늬 보다는 이방이나 사방연속무늬 쪽에 더 높은 반응을 보이는 편이었다. 반면에 수입면에서는 가정 수입 정도가 높아질수록 이방이나 사방과 같은 규칙적인 배열을 지닌 무늬에서 복합된 무늬로 옮겨가는 경향으로 봐서 앞으로는 바탕紋(地紋)위에 다른 紋(中心紋)이 겹쳐있거나, 類種의 圖象이 합쳐 하나의 紋樣을 이루는 경우 및 서로 다른

圖象이 합쳐 各各 다른 形을 이루는 경우 등의 形態와 같은 복합紋·抽象紋의 인기도 높아질 것으로 미루어 보며, 학생들도 복합무늬에 대한 인기가 가장 높았다. 즉, 服飾에 있어서 무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무늬있는 옷감이 衣服의 形態위에 잘 적용되도록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表 12)

6) 여러가지 形態의 금박 紋樣 中에서 택하고 싶은 형태의 紋樣으로는 대개가 壽·福·囍·富·貴 등을 나타내는 否祥(語)紋인 글씨에 흥미를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20代와 30代의 젊은 층에서는 植物紋樣에 관심을

表 12. 좋아하는 형식의 紋樣

	Frequency Expected	단 순	복 합	이 방연속	사 방연속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52 60.4	21 16.6	21 16.9	13 13.0	107 27.72	$\alpha=0.4466$
	30-39	40 41.8	15 11.5	11 11.7	8 9.0	74 19.17	
	40-49	86 76.2	15 21.0	17 21.3	17 16.4	135 34.97	
	50↑	40 39.5	9 10.9	12 11.1	9 8.5	70 18.13	
Ed	중↓	49 45.2	10 12.4	11 12.6	10 9.7	80 20.73	0.8015
	고	98 98.8	28 27.2	27 27.7	22 21.3	175 45.34	
	전문	7 5.1	1 1.4	1 1.4	0 1.1	9 2.33	
	대	38 42.4	16 11.7	14 11.9	7 9.1	75 19.43	
	대↑	26 26.5	5 7.3	8 7.4	8 5.7	47 12.18	
In	10↓	64 64.4	21 17.7	20 18.0	9 13.9	114 29.53	$\alpha=0.3878$
	10-30	84 83.0	20 22.8	27 23.2	16 17.9	147 38.03	
	31-50	51 51.4	14 14.1	9 14.4	17 11.1	91 23.58	
	51-70	8 8.5	1 2.3	4 2.4	2 1.8	15 3.89	
	70↑	11 10.7	4 3.0	1 3.0	3 2.3	19 4.92	
Total		218 56.48	60 15.54	61 15.80	47 12.18	386 100.00	

지니는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용이나 글씨紋樣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세대에 따라 조금씩 기호의 차이성과 더불어 다양한 범위의 紋樣을 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역시 글씨 문양에 대한 인기가 높았으며 낮은 층에서는 오히려 꽃이나 학과 같은 부드럽고 온화한 感을 주는 紋樣에 대한 인기가 많았다. 수입면에서도 고위층의 가정에서 글씨 문양에 대한 인기는 현저하게 드러났으며, 학생들은 금박 紋樣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 있었던 복합된 형식의 紋樣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육수준이 높은층에서

수입이 많은 가정에서의 글씨 문양에 대한 인기는 압도적이었다. (表 13)

7) 직물에 수를 놓아서 紋樣을 나타낼 경우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20代에서는 80%라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손(手)수를 원하는 편이었으나,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기계수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는 달리 학력이나 수입이 낮은 층에서는 기계수에 관심을 지니는 반면에 고수준층에서는 일률적으로 손(手)수에 많은 인기를 모았다. 이는 실과 바늘과 바탕으로 成立된 藝術로서의 높은 평가에 대한 경비 문제에 기인된 사실이라고도 보겠다. 즉, 교육수준

表 13. 금박紋樣 中 택하고 싶은 형태

	Frequency Expected	용	봉 황	글 씨	학	꽃	복 합	기 타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6 6.1	12 15.5	32 30.5	18 17.2	19 27.2	18 9.7	2 0.8	107 27.72	$\alpha=0.0751$
	30-39	4 4.2	8 10.7	23 21.1	15 11.9	21 18.8	3 6.7	0 0.6	74 19.17	
	40-49	7 7.7	20 19.6	42 38.5	21 21.7	36 34.3	8 12.7	1 1.0	135 34.97	
	50↑	5 4.0	16 10.2	13 19.9	8 11.2	22 17.8	6 6.3	0 0.5	70 18.13	
Ed	중↓	5 4.6	6 11.6	18 22.8	17 12.8	29 20.3	5 7.3	0 0.6	80 20.73	$\alpha=0.0377$
	고	10 10.0	27 25.4	50 49.9	29 28.1	45 44.4	13 15.9	1 1.4	175 45.34	
	전문	1 0.5	3 1.3	4 2.6	0 1.4	1 2.3	0 0.8	0 0.1	9 2.33	
	대	3 4.3	8 10.9	24 21.4	9 12.0	15 19.0	14 6.8	2 0.6	75 19.4	
	대↑	3 2.7	12 6.8	14 13.4	7 7.5	8 11.9	3 4.3	0 0.4	47 12.18	
In	10↓	3 6.5	14 16.5	32 32.5	23 18.3	23 28.9	16 10.3	3 0.9	114 29.53	$\alpha=0.0213$
	10-30	12 8.4	20 21.3	34 41.9	23 23.6	48 37.3	10 13.3	0 1.1	147 38.08	
	31-50	6 5.2	21 13.2	29 25.9	9 14.6	19 23.1	7 8.3	0 0.7	91 23.58	
	51-70	0 0.9	0 2.2	6 4.3	3 2.4	4 3.8	2 1.4	0 0.1	15 3.9	
	70↑	1 1.1	1 2.8	9 5.4	4 3.1	4 4.8	0 1.7	0 0.1	19 4.92	
Total		22 5.70	56 14.51	110 28.50	62 16.06	98 25.39	35 9.07	3 0.78	386 100.00	

이 높아질수록, 수입정도가 많을수록, 기계수 보다는 손수에 많은 관심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傳統刺繡의 技法이나 紋樣은 現代化된 오늘의 機械文明으로 因한 大量生産이라는 이름 下에서도 文化的 產物로 重要하게 여겨진다. (表 14)

C. 색깔面

1) 직물에 수를 놓거나 염색을 해서 紋樣을 나타낼 경우의 색깔에 대해서는 80%의 높은 숫자가 화려하기 보다는 수수하거나 은은한 感을 표시하기를 원했으며 특히 30, 40代에서는 약 85%의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다. 반면에 20代나

50代에서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편으로 20代의 개성이나 50代의 젊음 추구로 해석되며, 요즘에 와서는 활동적·美的인 견지에서 한복도 개량시켜 입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수한 색깔을 원하는 숫자가 많은 사실로 韓服은 우리의 民族衣裳이라는 개념과 함께 자기 개성에 따라 단색 내지는 우아한 느낌을 주는 색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表 15)

2) 직조된 紋樣의 직물로 한복을 할 경우의 색깔 선택에 대한 의견은 기호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이 46%로 제일 높은 율을 나타내었고 이

表 14. 자수紋樣의 표현방식

	Frequency Expected	기 계	손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22 28.6	85 78.4	107 27.79	$\alpha=0.3688$
	30-39	21 19.5	52 53.5	73 18.96	
	40-49	41 36.1	94 98.9	135 35.06	
	50↑	19 18.7	51 51.3	70 18.18	
Ed	중↓	23 21.4	57 58.6	80 20.78	$\alpha=0.0439$
	고	56 46.6	118 127.4	174 45.19	
	전문	2 2.4	7 6.6	9 2.34	
	대	10 20.1	65 54.9	75 19.48	
	대↑	12 12.6	35 34.4	47 12.21	
In	10↓	22 30.5	92 83.5	114 29.61	$\alpha=0.1404$
	10-30	46 39.1	100 106.9	146 37.92	
	31-50	27 24.3	64 66.7	91 23.64	
	51-70	2 4.0	13 11.0	15 3.90	
	70↑	6 5.1	13 13.9	19 4.94	
Total		103 26.75	282 73.25	385 100.00	

는 20代에서 현저하게 볼 수 있었다. 반면에 남의 권유에 의해 택한다는 율이 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30, 40代에서는 계절에 따라 선택하는 반면에 50代에서는 현대 감각을 살린 유행을 따르는 편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한복 자체가 디자인이 고정된 민족복이라는 점에서 계절에 따라 직물을 달리하거나, 시대 감각에 맞춰 기호에 따라 개량시켜 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이나 수입面에서 낮은 층은 계절이나 유행에 따라 색깔을 선택하는 반면에 대학생이나 보통 교육 정도의 사람들은 각 개인의 기호를 중시했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통의상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 보였다. 비교적 학생들은 기호에 의해서 색깔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교육 수준이 높고 수입정도가 높은 가정에서는 전통의상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편이었다. (表 16)

3) 한복의 색배합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견은 무늬없이 상하동색이 41%로 가장 높은 율로 나타났고, 다음에는 有紋 상하동색이 30%로 나타났다. 앞에서 대학생들은 紋樣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을 뿐만아니라 색깔로써 개성 표현의 의욕이 강한 때 이므로 無紋보다는 有紋의 상하異色을 택하고 있었고, 그 외는 일률적

表 15. 자수나 염색 문양의 색깔

	Frequency Expected	수 수 합	화 려 합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79 85.7	28 21.3	107 27.72	$\alpha=0.0983$
	30—39	62 59.2	12 14.8	74 19.17	
	40—49	115 108.1	20 26.9	135 34.97	
	50↑	53 56.0	17 14.0	70 18.13	
Ed	중↓	67 64.0	13 16.0	80 20.73	$\alpha=0.0270$
	고	146 140.1	29 34.9	175 45.34	
	전문	5 7.2	4 1.8	9 2.33	
	대	52 60.0	23 15.0	75 19.43	
	대↑	39 37.6	8 9.4	47 12.18	
In	10↓	84 91.3	30 22.7	114 29.53	$\alpha=0.0567$
	10—30	128 117.7	19 29.3	147 38.08	
	31—50	72 72.8	19 18.2	91 23.58	
	51—70	10 12.0	5 3.0	15 3.89	
	70↑	15 15.2	4 3.8	19 4.92	
Total		309 80.05	77 19.95	386 100.00	

으로 학력이나 수입과는 관계없이 無紋同色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우리 조상이 白衣民族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로 지금도 이러한 경향이 살아 있음을 입증해주는 듯 하다. 또한 이 색이란 一個人的 관점에서 볼 때, 場所에 따라, 경우에 따라, 계절에 따라 등의 多樣的 측면에서 기호를 달리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各個人的 要求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배합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表 17)

4) 남자 저고리를 할 경우에 어떤 색깔을 택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옥색이 약 80%로 가장 높은 율을 보였으며, 기타란에서도 쪽색이나

녹색이라 하여 의견을 보인 점으로 보아, 대개가 푸른 계통의 색을 선택함을 볼 수 있었으나, 나이가 많은 50代에서는 유달리 흰색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는 흰색이 인기가 있는 편이었고, 70만원 이상의 수입을 지닌 가정에서 옥색에 관심을 보임으로서 결론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옥색에 대한 인기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래에 와서 염색 기술의 우수성과 더불어 한가지 계통의 색에 대해서도 다양한 색깔이 나옴으로써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의 범위도 넓어져가고 있는 듯 하다. (表 18)

表 16. 色선택

	Frequency Expected	유 행	제 절	기 호	권 유	전통 의 색 상의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4 6.1	24 41.9	64 49.3	2 1.4	13 8.3	107 27.72	$\alpha=0.0005$
	30—39	6 4.2	34 28.9	26 34.1	0 1.0	8 5.8	74 19.17	
	40—49	5 7.7	64 52.8	62 62.3	1 1.7	3 10.5	135 34.94	
	50 ↑	7 4.0	29 27.4	26 32.3	2 0.9	6 5.4	70 18.13	
Ed	중 ↓	5 4.6	42 31.3	27 36.9	1 1.0	5 6.2	80 20.73	$\alpha=0.0084$
	고	11 10.0	71 68.5	84 80.7	2 2.3	7 13.6	175 45.34	
	전문	2 0.5	3 3.5	3 4.2	0 0.1	1 0.7	9 2.33	
	대	2 4.3	16 29.3	44 34.6	1 1.0	12 5.8	75 19.43	
	대 ↑	2 2.7	19 18.4	20 21.7	1 0.6	5 3.7	47 12.18	
In	10 ↓	4 6.5	39 44.6	58 52.6	1 1.5	12 8.9	114 29.53	$\alpha=0.1968$
	10—30	9 8.4	66 57.5	59 67.8	3 1.9	10 11.4	147 38.08	
	31—50	5 5.2	36 35.6	44 42.0	1 1.2	5 7.1	91 23.58	
	51—70	0 0.9	3 5.9	10 6.9	0 0.2	2 1.2	15 3.89	
	70 ↑	4 1.1	7 7.4	7 8.8	0 0.2	1 1.5	19 4.92	
Total		22 5.70	151 39.12	178 46.11	5 1.30	30 7.77	386 100.00	

5) 남자 바지의 색깔로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색깔이 회색과 자주색인데 대학생들과 50代에서는 자주색을 즐기며 30代나 40代에서는 회색에 관심을 보였다. 비교적 교육 수준이 낮은 층에서는 회색을 즐겼으며, 나이가 들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주색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수입 면과는 상관 없이 각 個人마다 다양한 선택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회색이 53%, 자주색이 42%로서 회색에 조금 더 높은 인기를 모은 점으로 보아, 남자 한복으로서는 옥색 저고리와 회색 바지가 가장 많이 입혀지고 있으며, 수수한 전통美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表

19)

D. 크기面

紋樣의 크기에 있어서의 선택은 주로 어떤 면에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대한 의견에서 「얼굴과 체형에 맞춘다」가 50%로 가장 높은 율로 나타났다. 衣服에 있어서의 무늬의 역할은 대단히 크므로 얼굴과 체형에 맞춘다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사실인 것이다. 그리하여 대개 큰 무늬를 좋아하거나 대개 작은 무늬를 좋아한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자신의 체형에 비례하여 고정관념상으로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紋樣 그 자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

表 17. 色배합

	Frequency Expected	無紋同色	無紋異色	有紋同色	有紋異色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17 44.1	19 15.5	42 32.2	29 15.2	107 27.72	$\alpha=0.0001$
	30—39	37 30.5	9 10.7	19 22.2	9 10.5	74 19.17	
	40—49	68 55.6	19 19.6	40 40.6	8 19.2	135 34.97	
	50↑	37 28.8	9 10.2	15 21.0	9 10.0	70 18.13	
Ed	중↓	42 33.0	11 11.6	18 24.0	9 11.4	80 20.73	$\alpha=0.0001$
	고	77 72.1	26 25.4	56 52.6	16 24.9	175 45.34	
	전문	6 3.7	0 1.3	1 2.7	2 1.3	9 2.33	
	대	10 30.9	13 10.9	27 22.5	25 10.7	75 19.43	
	대↑	24 19.4	6 6.8	14 14.1	3 6.7	47 12.18	
In	10↓	28 47.0	21 16.5	34 34.3	31 16.2	114 29.53	0.3566
	10—30	65 60.6	20 21.3	45 44.2	17 20.9	147 38.08	
	31—50	50 37.5	11 13.2	25 27.3	5 13.0	91 23.58	
	51—70	7 6.2	3 2.2	3 4.5	2 2.1	15 3.89	
	70↑	9 7.8	1 2.8	9 5.7	0 2.7	19 4.92	
Total		159 41.19	56 14.51	116 30.05	55 14.25	386 100.00	

다]에 대해서도 20%의 응답을 보여, 이것은 대학생들에게서 많이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30대의 젊은 층에서는 얼굴과 체형에, 40, 50대에서는 앞에서 紋樣의 관심面에서 살펴본 바 있는 크기에 따라 기호를 달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40대는 보통 크기 내지는 큰 무늬를 즐겼지만, 50대에서는 작거나 보통 크기의 紋樣이 인기를 모은 점으로 보아 크기에 있어서 크거나 작은 무늬는 각 개인의 체형이나 개성에 직결된다고 보며, 보통 크기면 누구에게나 무난할 것으로 본다. 대학생들도 큰 무늬 내지는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층과 함께 얼굴과 체형에 맞추

는 편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체형과 더불어 性別에 따라서도 여러가지 形態의 紋樣 中 다양한 선택을 이룰 것이고, 各 個人의 기호 뿐만 아니라 계절·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表 20)

E. 응용面

1) 紋樣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공부해서 실생활에 응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에 대한 의견은 「보통이다」가 60% 「관심이 크다」가 26%로 전체적으로 보면 87%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표시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紋樣

表 18. 남자저고리의 色

	Frequency Expected	흰 색	옥 색	분 홍	기 타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7 8.6	74 73.8	11 8.8	1 1.8	93 25.20	$\alpha=0.3566$
	30—39	3 6.8	62 58.8	8 7.0	1 1.4	74 20.05	
	40—49	12 12.2	106 104.8	11 12.5	3 2.5	132 35.77	
	50↑	12 6.4	51 55.6	5 6.6	2 1.3	70 18.97	
Ed	중↓	8 7.3	63 62.7	6 7.5	2 1.5	79 21.41	$\alpha=0.5564$
	교	17 15.9	139 137.4	14 16.4	3 3.3	173 46.88	
	전문	3 0.8	5 7.1	1 0.9	0 0.2	9 2.44	
	대	4 5.6	48 48.4	8 5.8	1 1.2	61 16.53	
	대↑	2 4.3	38 37.3	6 4.5	1 0.9	47 12.74	
In	10↓	4 9.3	80 80.2	14 9.6	3 1.9	101 27.37	$\alpha=0.0106$
	10—30	23 13.3	108 114.3	10 13.7	3 2.7	144 39.02	
	31—50	7 8.4	76 72.3	8 8.6	0 1.7	91 24.66	
	51—70	0 1.4	11 11.9	3 1.4	1 0.3	15 4.07	
	70↑	0 1.7	18 14.3	0 1.7	0 0.3	18 4.88	
Total		34 9.21	293 79.40	35 9.49	7 1.90	369 100.00	

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내지는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특히 일부의 관심者들에 의한 服飾 研究로서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리라고 여겨진다. 20代에서 가장 관심이 많음을 보였고 비교적 젊은 층일수록 실생활에 응용해보고 싶은 관심의 정도가 높은 현상을 보였다. 수입 정도面에서 빈곤한 계층에서는 생활의 여유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며, 이에 대한 응답 역시도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젊은 층에서 교육수준이나 수입 정도가 높은 가정에서 紋樣의 응용面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表 21)

2) 紋樣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은 주로 어떤 분야에 적용 내지는 응용시켜 보고 싶은가에 대한 의견에는 실내장식이 40%로 가장 높은 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衣裳에 39%의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20代에서는 옷에 대한 관심이 많은 때 이므로 54%가 의상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그 외 나머지 30, 40, 50代 들에서는 집안 일에 많은 신경을 쓰는 편으로서 실내장식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는 건축에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임으로써 이 점은 수입정도가 높은 가정에서 현저하게 건축에 관심을 보인 사실과 일치되

表 19. 남자바지의 색

	Frequency Expected	회 색	자 주	기 타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49 49.9	42 39.8	2 3.3	93 25.20	$\alpha=0.3920$
	30-39	42 3.97	28 31.7	4 2.6	74 20.05	
	40-49	72 70.8	58 56.5	2 4.7	132 35.77	
	50↑	35 37.6	30 30.0	5 2.5	70 18.97	
Ed	중↓	44 42.4	34 33.8	1 2.8	79 21.41	$\alpha=0.2656$
	고	95 92.8	70 74.1	8 6.1	173 46.88	
	전문	4 4.8	5 3.9	0 0.3	9 2.44	
	대	35 32.7	26 26.1	0 2.1	61 16.53	
	대↑	20 25.2	23 20.1	4 1.7	47 12.74	
In	10↓	47 54.2	52 43.2	2 3.6	101 27.37	$\alpha=0.2574$
	10-30	76 77.3	60 61.7	8 5.1	144 39.02	
	31-50	57 48.8	31 39.0	3 3.2	91 24.66	
	51-70	7 8.0	8 6.4	0 0.5	15 4.07	
	70↑	11 9.7	7 7.7	0 0.6	18 4.88	
Total		198 53.66	158 42.82	13 3.52	369 100.00	

고 있다. 그리하여 이 紋樣은 다양한 측면에서 응용 디자인(design)되어 잘 활용시키면 實生活面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表 22)

V. 結 語

1. 韓服은 요즈음에 와서 파티나 예복으로 특별한 경우를 위하여 입는 경우(76%)가 많아져서 평상복으로는 활동상의 불편과 더불어 소외되어 활용되지 않는 편이며, 젊은 층의 대부분이 양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과 같은 추운 날씨에는 좋은 방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

로 노년층의 몇몇 사람들에게는 평상복으로도 착용됨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이 한복 그 자체에 대하여 고유 의상으로서의 이미지와 함께 더군다나 젊은 층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습관화되어 있지 못해서 기호에 맞지 않거나 남들이 입지 않는 탓으로 별로 입지 않게 되지만 명절에라도 가끔씩 착용시킴으로써 우리 옷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전통의상으로서 평상복 보다는 외출복으로 활용 연구하여야겠다.

2. 紋樣이란 美的인 쾌감을 일으키기 위하여 어떤 물체를 장식하고 있는 점·선·면, 그리고 그 종합적인 형상이나 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表 20. 선택하는 紋樣의 크기

	Frequency Expected	얼굴과체형에 따라	문양의 종류에 따라	큰 무늬	보통크기	작은무늬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57 54.1	26 21.9	7 5.8	9 15.2	8 10.0	107 27.72	$\alpha=0.3921$
	30-39	39 37.4	15 15.1	5 4.0	8 10.5	7 6.9	74 19.17	
	40-49	67 68.2	24 27.6	8 7.3	25 19.2	11 12.6	135 34.97	
	50↑	32 35.4	14 14.3	1 3.8	13 10.0	10 6.5	70 18.13	
Ed	중↓	45 40.4	11 16.4	2 4.4	17 11.4	5 7.5	80 20.73	$\alpha=0.1797$
	고	80 88.4	37 35.8	12 9.5	24 24.9	22 16.3	175 45.34	
	전문	3 4.5	2 1.8	1 0.5	1 1.3	2 0.8	9 2.33	
	대	40 37.9	17 15.3	6 4.1	8 10.7	4 7.0	75 19.43	
	대↑	27 23.7	12 9.6	0 2.6	5 6.7	3 4.4	47 12.18	
In	10↓	57 57.6	28 23.3	7 6.2	14 16.2	8 10.6	114 29.53	$\alpha=0.3414$
	10-30	75 74.3	30 30.1	10 8.0	21 20.9	11 13.7	147 38.08	
	31-50	46 46.0	15 18.6	1 5.0	15 13.0	14 8.5	91 23.58	
	51-70	9 7.6	4 3.1	1 0.8	0 2.1	1 1.4	15 3.89	
	70↑	8 9.6	2 3.9	2 1.0	5 2.7	2 1.8	19 4.92	
Total		195 50.52	79 20.47	21 5.44	55 14.25	36 9.33	386 100.00	

무늬라 일컬어지는 의복의 歷史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에서는 이러한 紋樣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50代에서도 관심이 없다는 숫자(1%)가 극히 드문 점으로 보아 衣服을 구성하는 織物을 나타내는 무늬로서의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紋樣에 대한 관심의 비중으로는 着服者의 연령·個性·體型 등에 의해서 달라지겠으나 대개가 紋樣 그 자체에 가미된 色相(67%) 내지는 그 짜임새(25%)에 따라 기호를 달리하였다. 직물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자수문양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자수는 특히 우리 女性의 손으로 始

作하며 계급적 표시를 했던 옛날이나 作家의 精神表現으로 이루어진 現代를 막론하고 실과 바늘과 바탕으로 成立된 藝術로서, 강한 의욕보다는 婦德의 美를 가져다 주는 뜻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紋樣의 表現 技法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즐겨 입는 형태의 紋樣으로는 各 時代마다 紋樣의 50%씩 차지하는 植物紋이 제일 多樣하며 현대에 올수록 모든 紋樣이 점점 抽象化되어 가는 경향과 더불어 무슨 꽃인지 形態를 알 수 없는 꽃들과 줄기, 잎, 열매 등이 복합되어 나

表 21. 紋樣에 대한 관심의 정도

	Frequency Expected	크 다	보 통	아 니 다	Total	유의 수준 ($\alpha=0.05$)
Ag	20-29	40 28.3	55 64.9	12 13.9	107 27.72	$\alpha=0.0437$
	30-39	19 19.6	48 44.9	7 9.6	74 19.17	
	40-49	30 35.7	82 81.8	23 17.5	135 34.97	
	50↑	13 18.5	49 42.4	8 9.1	70 18.13	
Ed	중↓	16 21.1	47 48.5	17 10.4	80 20.73	$\alpha=0.0291$
	고	38 46.2	116 106.1	21 22.7	175 45.34	
	전문	2 2.4	6 5.5	1 1.2	9 2.33	
	대	28 19.8	39 45.5	8 9.7	75 19.43	
	대↑	18 12.4	26 28.5	3 6.1	47 12.18	
In	10↓	30 30.1	63 69.1	21 14.8	114 29.53	$\alpha=0.2055$
	10-30	40 38.8	89 89.1	18 19.0	147 38.08	
	31-50	20 24.0	65 55.2	6 11.8	91 23.58	
	51-70	5 4.0	7 9.1	3 1.9	15 3.89	
	70↑	7 5.0	10 11.5	2 2.5	19 4.92	
Total		102 26.42	234 60.62			

타나는 紋樣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보인다. 植物紋樣 中 사군자의 인기는 월등히 높으며(58%), 다른 紋樣과 잘 어울릴 수 있는 利點이 있어 吉祥語紋과 함께 교대하여 나타나기도 하는 비교적 단순 소박한 서민적인 形態로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조적인 動物紋은 生活 주변에서 흔히 보거나, 전설상의 動物紋은 수없이 많은 수가 실물에서는 별로 種類가 많지도 않으며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 보다는 꽃, 구름, 吉祥語紋 등과 함께 나타난다. 학 紋樣이 비교적 여성적인 문양으로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50%), 전

반적으로 植物紋 보다는 현대에 올수록 줄어지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吉祥(語)紋·幾何紋은 현대에 올수록 素材도 多樣해지고 pattern도 여러가지로 變化되어 나타난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젊은 층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기하紋樣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다. 紋樣 자체도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감각보다는 전통 紋樣에 대한 관심(51%)이 조금 더 높았다. 즉 일부의 젊은층에서는 현대감각의 紋樣과 함께 한복 자체도 디자인은 그대로 간직하더라도 화려하게 변화시킨 개량 한복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활동복을 떠난 파티나 예복 등으

表 22. 紋樣의 응용분야

	Frequency Expected	건 축	실내장식	의 상	기 타	Total	유의수준 ($\alpha=0.05$)
Ag	20-29	4 6.9	26 32.7	36 26.1	0 0.3	66 28.70	$\alpha=0.1886$
	30-39	3 4.3	23 20.3	15 16.2	0 0.2	41 17.83	
	40-49	11 8.6	42 40.6	28 32.4	1 0.4	82 35.65	
	50↑	6 4.3	23 20.3	12 16.2	0 0.2	41 17.83	
Ed	중↓	2 4.9	29 23.3	15 18.6	1 0.2	47 20.43	$\alpha=0.0113$
	고	13 10.9	60 51.3	31 41.1	0 0.5	104 45.22	
	전문	1 0.6	1 3.0	4 2.4	0 0.0	6 2.61	
	대	3 4.4	16 2.08	23 16.6	0 0.2	42 18.26	
	대↑	5 3.2	8 15.4	18 12.3	0 0.1	31 13.48	
In	10↓	6 6.9	31 32.7	29 26.1	0 0.3	66 28.70	$\alpha=0.8290$
	10-30	7 8.8	42 41.6	35 33.2	0 0.4	84 36.52	
	31-50	7 6.4	31 3.02	22 24.1	1 0.3	61 26.52	
	51-71	2 0.9	4 4.5	3 3.6	0 0.0	9 3.91	
	70↑	2 1.0	6 5.0	2 4.0	0 0.0	10 4.35	
Total		24 10.43	114 49.57	91 39.57	1 0.43	230 100.00	

로 활용·착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시대가 바뀌더라도 傳統紋樣은 그 民族이나 國家의 傳統的 感情을 表現해 주는 民俗的인 무늬로서 그 民族特有의 감정과 부합되도록 도안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한복에 대한 매력 및 고유 의상에 대한 美 의식은 쉽게 사라질 수 없는 듯 하다. 또한 미래의 西洋的인 紋樣도 반드시 民族 感情 속에서 消化하고 우리의 傳統的인 固有紋樣을 應用 開發시킴으로써 한 藝術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紋樣도 着服者의 個性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의견은 단순무늬가 56%로서 가장 높

은 율을 보이고 있으나, 傳統的인 무늬를 약간 변화시킨 것은 우아하고도 더욱 품위를 높여주므로 복합紋·抽象紋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현 技法에서도 직조나 금박紋樣外에 刺繡紋樣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20代에서는 80%의 압도적인 숫자가 기계繡 보다는 손(手)繡를 원하고 있었으나, 大量生産이 實用化된 지금에서도 傳統刺繡의 전승과 創造는 새 時代의 새로운 感覺에 맞는 方向으로 반드시 우리 民族 特有의 감정과 부합되도록 圖案되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4. 紋樣은 크게 직조·금박·자수·염색 문양

으로 분류해 볼 때, 직조 문양의 직물로 한복을 할 경우의 색깔 선택은 기호에 따라 선택한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이에 비해 유행하는 색이나 남의 권유에 의해 선택한다는 율이 5%로 가장 낮은 율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옷이 아름답기는 하나 민속 의상이라는 점에서 디자인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着服者 자신이 個性美를 위해서는 바른 着用法에서의 맵시·裝飾利用·기호에 따라 色相配合 등의 기교가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자 한복으로는 옥색저고리와 회색 바지가 가장 인기가 있었으며 근래에 와서 염색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색깔이 나오므로써 소비자의 기호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現代人의 기호 및 우리 옷에 대한 다가적인 調査 研究를 통해 色相 構成 등에 있어서의 關心度를 높여서 좀더 품위있고, 아름답게 착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크기面에서 본 紋樣의 기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 「얼굴과 체형에 맞춘다」가 50%로 가장 높은 율로 나타났다. 체형 뿐만 아니라, 性別·여러가지 形態의 紋樣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이룰 것이고 各 個人의 기호나 계절·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아무튼 각자가 자기 個性을 연구하고 體型을 생각해서 이상과 같은 직물의 조직이나 짜임새 등에 의해 나타나는 紋樣의 形態·色相 크기를 잘 고려하여 옷을 잘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紋樣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실생활에 응용해 보고 싶은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측면의 반응(86%)을 보였다. 그 中の 49%가 실내장식에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하나의 裝飾藝術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부의 관심者들에 의한 服飾 研究에 있어서 外面的인 形態 研究와 더불어 紋樣 자체에 포함된 상징성의 研究를 하는 것도 重要하고 紋樣分析을 통하여 民族文化의 발자취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A Study on Present Status of Preferences in the Choice of Patterns in Clothing

Kim Eun Ju

1. Purpose

The purpose is to apply and adapt ancient textile pattern to practical life, an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creative development of modernization and Koreanization of textile pattern by the survey of the extent of taste for the textile pattern existent in Korean costume among costumes.

2. Hypothesis

Textile pattern is in most classical one expressed in fact, but nowadays abstract or geometric one is more exist. Consumers are in most part in forties, and so the taste cannot be ignored. Therefore aesthetic consciousness found Korean costume is more important rather than excessively bold or modern one.

3. Method and Process

① This research is analysed 386 one through college student and parents of a primary or high school.

② Taste of the pattern is compared and analyzed as age, education, pocket money of the student or an income of a month in home through computer. And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s research is operation through the Chi-Square Goodness of-Fit-Test.

4. Conclusion

① The Korean costume put on mostly party or formal dress, therefore it should be researched as an outdoor dress with traditional costume.

② The most one is concerned in textile pattern, its taste is different from color, constitution. Textile industry is developed not only weave pattern, gold-covering pattern but embroidery pattern, dye pattern, therefore the various side of pattern design should be researched.

③ In Side of form, plant pattern is not only most various but highest in popularity. According to approach nowadays, all of the pattern becomes composition or geometric one with abstract tendency and so from these day pattern is necessary combinationed, researched with our people emotion.

④ The color of textile pattern is choiced individual taste. Through investigate, research in various side of the modern taste and our costume, we take growing interest in the color, composition of textile, and should dressed with beauty and grace.

⑤ In side of size, textile pattern is choiced to individual face and body shape through research on form, color, size of these pattern, we should endeavor to dress well.

⑥ In side of application, most people is concerned in not only interior ornament but the costume is high. Costume research by some people of the outside and symbol with interior through the pattern analysis is not only very important but also is due to people culture.